

# 미아사거리역에 ‘역세권·45층’ 1600세대 아파트 조성

서울시, 미아동 75일대 신동기회  
규제완화 적용, 용도지역 상향  
올해 중 구역지정 목표로 사업 추진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 300m 역세권에 최고 높이 45층, 1600세  
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잠재력  
과 주변 개발 등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  
해 역세권 규제 완화를 적용, 용도지역  
을 제2종주거/제2종(7)에서 준주거/제3  
종주거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하는 등 다각적 지  
원으로 사업성이 개선,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유일의  
‘더블 역세권’ 입지에 대형 백화점 등 생  
활 편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는 과거 1960년대 형성된 단독 저  
층 주택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주



미아동 7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거지 노후,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등  
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상지 주변에서는 ▲역세권활  
성화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심공  
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에 확정된 주택정비  
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도시 여  
건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주변 개발  
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

적으로 교통 체계를 정비한다. 북측 오  
현로, 동측 오패산로는 향후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도로 폭을 늘려 주변 교  
통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면도로도 함  
께 정비해 지역 내 접근성과 진출입 여  
건을 개선한다.

오현로는 인근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1.5m 확폭 전제)해 3차로에서 5차  
로(폭 25m)로, 오패산로는 도심공공주  
택복합사업 등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2차로에서 4-5차로(폭 최대 22.5m)로  
폭을 늘린다.

다음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미아사거  
리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 대중교통 밀  
착형 공원을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  
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송중초와 북서울  
꿈의숲을 연결하는 오현로변에는 학교  
와 연계한 공원을 분산 배치한다.

대상지 내 ‘육거리 형태’의 도로를 고  
려해 단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으  
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최  
소한의 데크 계획을 통해 단지 내 평탄  
한 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 유모차  
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단차 구  
간을 이동하기 편리하게끔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도 설치한다.

대상지 북동측 일부 급경사를 활용해  
테라스형 주동과 커뮤니티시설을 계획  
하고, 이를 통해 구역 대비 약 70%의 평  
탄한 대지를 확보해 주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주변은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으로 계획하고 송중초교 인접부와 가로

변은 학교 일조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저층으로 배치,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또 송중초교 통학로와  
연계한 단지 내 열린 공간을 확보해 개  
방감을 더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  
정된 미아동 75 일대 주민공람, 의견 청  
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구역 지정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미아동 75 일대 재개발 신속통  
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64개소  
중 168개소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  
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을 대표하는  
생활·교통 중심지인 만큼 이번 신속통합  
기획 확정이 강북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역세권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역세권 주거지 활성화  
를 위해 후속 절차도 전폭적  
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경희대, NASA 과학자 학술연구교수로 초빙

NASA 파티 카루이아 박사  
우주의학·우주생명과학 연구 진행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미래우주탐  
사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파티 카루이아(Fathi Karouia) 박사(사  
진)를 학술연구교수로 초빙했다.

19일 경희대에 따르면, 파티 박사는  
NASA와 경희대 미래우주탐사연구원을  
겸직하며 우주의학과 우주생명과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티 박사는 NASA에서 25년 이상 근  
무하며 우주의학, 우주생명과학, 천체생  
물학, 행성보호, 우주비행사 건강, 국제  
우주정거장 내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NASA  
에서는 우주 생물학포  
트폴리오 수석 과학자  
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시행되는 연구와 실  
험을 총괄했다.

현재 국제우주연맹(IAF)에서는 천체  
생물학 및 우주 탐사 발전 위원회와 우  
주 제조·생산 응용 위원회의 공동위원  
장을 맡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해 대학기초연구소 지  
원 사업(G-LAMP)에 선정되면서 미래  
우주탐사연구원을 신설했다. 연구원은  
▲우주과학탐사 핵심 기술 ▲우주 인공  
지능 ▲우주 기초의학 등을 중심으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빙을 계기로 김만석 경희대의  
예과 교수와의 공동연구도 추진될 전망  
이다. 김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NASA  
GeneLab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티 박사와 우주의학 분야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파티 박사는 “경희대 과학자들과 한국  
우주 생태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  
고, 우주의학과 우주생명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교수는 “우주 탐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구상의 인  
류에게 도움이 되는 생의학 혁신을 만  
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車 산업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추진

경기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약 1600명 고용창출·유지 기대

경기도가 자동차산업 분야 일자리 창  
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  
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  
비 80%와 도비 20%를 투입해 총 34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자동차산업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도는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직  
자, 재직자, 기업을 아우르는 종합 일자  
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미취업자와 자동차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등이  
며, 기존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미래차  
부품 산업 관련 업종도 포함된다.

사업은 ▲구직자 취업연계 ▲구직자  
교육훈련 ▲신규 입직자 지원 ▲재직 근  
로자 지원 ▲기업 지원 및 컨설팅 ▲통

합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등 6개 세부 사  
업으로 추진되며, 채용부터 정착, 고용  
유지,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은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  
원회가 총괄하며, 각 세부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경기도일자리재  
단, 경기산학융합원,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 담당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 지원  
과 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기  
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입직자의 조기 정착과 재직 근로자  
의 고용 안정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산업 기업에는 전문가 현  
장 컨설팅과 생산·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제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채용 확  
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산  
업 분야에서 약 1600명의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런 수능 응시자 대학 914명 합격

서울시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으로  
공부한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자 가운데 914명이 대학 입시에 합  
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학계  
열은 22명,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54  
명이었다. 서울시는 학습지원 중심이던  
서울런을 진로·취업까지 아우르는 ‘서울  
런 3.0’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  
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을 이용  
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명이 2026  
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이는  
2025학년도 합격자 782명보다 132명 늘  
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6.8%다.

주요 대학·학과 합격자도 늘었다. 올  
해 합격생 914명 가운데 주요 선호 대  
학·학과 합격자는 76명으로, 전년 63명  
보다 13명(20.6%)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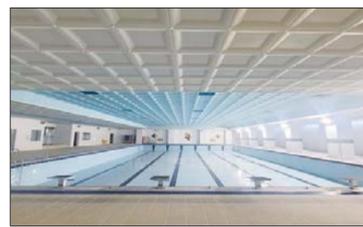
## 헬스장 등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 부대시설 이관범위 확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  
설까지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수  
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  
지 범위를 넓혀 전담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  
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  
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  
은 부대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감감 효과가 제한적이  
라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수도여자고등학교 수영장 내부. /서울시교육청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해 왔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만큼, 이번 개정으로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그동안 명확한 관  
리 기준이 부족했던 부대시설의 안전관  
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  
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파주시, 총 20개 상권서 최대 20% 환급

‘상반기 경기살리기 톡큰 세일’ 참여

파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소  
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  
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톡큰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  
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 7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5개소, 골목상권 7개소, 연계상  
권 1개소 등 총 20개 상권이 참여한다.

톡큰 세일 참여 점포에서 ‘파주페이’  
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20%  
가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  
대 3만 원이며, 행사 기간 동안 최대 12

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톡톡’을 이용할  
경우,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  
는 5천 원 할인 쿠폰이 행사 기간 동안  
무제한 지급돼 비대면 소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경기살리기  
톡큰 세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셔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  
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  
며 “하반기 톡큰 세일에는 보다 많은 점  
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정  
책 추진에도 더욱 힘을 계획”이라고 말  
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